

##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문도호 (샘안양병원 혈액종양내과 & 호스피스담당,  
한국호스피스협회 연구이사)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좋은 글이 있기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남가주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결혼한 젊은 부부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것을 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일 년, 오 년, 십 년을 이렇게 하기를 15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낙심치 말자고 위로도하고 희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16년 째 되던 해 드디어 아내가 애기를 가졌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뭘 뜻이 기뻐하였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해산달이 다가오면서 다니엘과 에스더라는 아들, 딸의 이름도 지어 두었으며 아기방을 온 갖 것으로 꾸며 민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윽고 산기가 있어 병원에 갔습니다.

무서운 진통이 있을 후 사내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아기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여 주지를 앓았습니다. 몇 번이나 요구한 후 간호사가 데려온 아이를 본 어머니는 까무라쳤습니다.

온몸과 얼굴이 뒤틀린 흥척스런 기형아였습니다. 그렇게도 잘하고 감사했는데 말입니다.

나중해야 안 남편은 더욱 절망으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어쩌다 우리에게 이런 형벌을 하고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내는 깨어난 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도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의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씻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떤 가정에 주면 가장 사랑으로 키울까 하고 지금부터 10년간 고민하시며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생각하시다가 우리 부부 가정에 맡겨지면 제일 많은 사랑을 받으리라 결정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키우겠습니다. 당신도 이 생명을 도와주세요

남편도 울고 아내고 울고 들어왔던 의사와 간호사도 따라 울었습니다.

호스피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환우와 가족은 그냥 저희들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해 줄 것인지 고민 고민하다가 저희 기관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단 한명의 환우와 가족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